

언어신기의

# 수능직전 모의고사

(2013학년 해설지)

언어신기 유재완 지음

※ 이 글에 실린 독창적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 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오류 수정 ]

### 2번 문제

#### 이의 제기 내용

②번 문항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의 구절이 (가)와 (나)시의 표현방식으로 타당하지 않다.

#### 검토 과정

1) (가)시와 (나)시는 모두 청자가 현존하지 않는 독백적 상황이다. (가)시의 경우는 ‘그대’라는 시어가 있지만 청자가 부재한 상황이고, (나)시의 경우는 완전한 독백적 상황이다.

2) ‘말을 건네는 방식’의 개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대방에게 말을 붙이고 건네기 위해서는 청자가 존재해야 한다. ‘말을 건네는 방식’ 개념은 대화나 독백의 개념처럼 청자의 존재 여부와 관련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점이 있다. 청자가 꼭 현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시처럼 부재한 청자를 떠올리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애매하다.

3) 수능에서 나온 2개의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먼저 2008학년도 수능 14번 ④번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출제되었다. (가)시 「와사등」과 (나)시 「사령」에 대한 표현상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 이 문항이 정답이 아니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가)시 「와사등」은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독백적 상황이고, (나)시 「사령」에서는 청자인 ‘그대’와 ‘벗’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현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으로 떠올린 것인지 정확히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8번 ②번에서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출제되었다. (가)시 「꽃밭의 독백-사소단장」에서는 ‘문 열어라 꽃아’ 부분에서, (나)시 「나무를 위하여」에서는 ‘목 움츠린 나무들아’ 부분에서, (다)시 「만인사」에서는 ‘백구야 날지 마라’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자가 사람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사물대상이고, 그 사물대상에 대해 사람을 부르는 호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청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4) ‘말을 건네는 방식’의 개념이 청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문장의 형태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출제의도였다. (가)시에서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부분에서, (나)시에서는 ‘강물은 또 풀리는가’ 부분에서 의문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문문의 경우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이였다. 그러나 이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의문문이 독백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다!), 또 평서문이나 청유문 등도 문맥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다.

5) 많은 시에서 의문문의 형태를 통해 어떤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서를 심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문문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질문’으로 “청자에게 응답의 의무를 직접 부과”한다. 이 경우 청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문제기’로 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청자에게 응답의 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국어의미론』, 박종갑, 박이정)

**검토 후 결론**

- 1) 의문제기의 기능을 갖는 의문문 형태가 곧바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②번 문항 ‘말을 건네는 방식’은 적합하게 출제된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
- 3) 출제의도에 맞게 ②번 문항을 수정하여 새롭게 바꾸어 출제한다.

② 의문제기의 표현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9번 문제**

**이의 제기 내용**

‘낮다’의 ②번 문항과 ③번 문항의 의미상 차이점이 불분명하다.

**검토 과정과 결론**

- 1) 지문의 ㉠가 포함된 문장이 명료하지 않아서, 선택지 ① ~ ⑤번 문항 속에서 ㉠와 유사하게 사용된 예시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2) 그러나 ‘낮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한다’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으므로, 지문의 문장이 왜 어색한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이 문장은 비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교의 대상이 서술되지 않아서 의미상의 모호함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먼저 지문의 내용이 어색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기로 하였다.

(A안)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행동하지 못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행동한 것을 더 후회하는 것이다.

(B안)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행동하지 못함을 행동한 것보다 ㉠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행동한 것을 더 후회하는 것이다.

(C안)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행동한 것을 행동하지 못함보다 ㉠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행동한 것을 더 후회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A안이 가장 자연스러우나, 문제를 살릴 수 없어서 B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안을 문맥에 맞게 서술하면 C안이 된다. 그러면 ‘낮게’ 대신에 ‘높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한다. 참고로 ‘낮다’와 ‘높다’는 의미상으로 대조되기 때문에 용법상으로 같은 기능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 선택지 문항의 ②번 문항과 ③번 문항의 예시문이 ‘낮다’의 각 의미에 잘 대응되지 못하는, 어려운 예시문이라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 ① ~ ⑤의 각 문항은 우리나라 공식 국어사전인 ‘국립국어원’ 사전에 나와 있는 예시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 문항에 나오는 예시문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낮다’의 각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시문을 국립국어원 사전에서 주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보다 쓰임새가 복잡하고 애매함을 의미할 것이다.

4) (‘낮다’와 ‘높다’의 용법과 예시문을 사전에서 인용하면서, 문제 해설도 함께 할게요.)

### 낮다 (「형용사」)

「1」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저 산은 낮지만 험하다./책상이 낮고 작아서 불편하다./하늘에 낮게 깔린 먹구름이 금방 비를 퍼부을 것 같다./이 구두는 굽이 낮다./마당이 낮아서 비만 오면 마당이 진창이 된다./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초저녁부터 마당가 텃밭머리에서 피워 올리는 모깃불의 연기가 한없이 낮게만 깔리는 바람에 집안이 온통 생초목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2」 **높낮이로 잴 수 있는 수치나 정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온도가 낮다/기압이 낮다/습도가 낮다/혈압이 낮다/임금이 낮다/인구 밀도가 낮다/수압이 낮아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이 물질은 끓는점이 물보다 낮다./관동 지방은 산지가 많아서 경지율이 낮다./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새 정부는 세금을 낮게 매겼다./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선택지 ②번 문항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3」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질이 낮은 물건/교육 수준이 낮다/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도 낮은 편이다.

( 선택지 ③번 문항은 ‘**주관적 기준**’과 비교하여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문의 내용도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4」 지위나 계급 따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소령은 대령보다 계급이 낮다./누가 높고 누가 낮으며 누가 높았고 누가 낮았으면 어떨단 말인가? <<최인훈, 구운몽>>/계급은 제일 낮아도 난 이 캠프 안에서 외람되게 깎듯이 선배 대접을 받고 있소. <<홍성원, 육이오>>

「5」 소리가 음계에서 아래쪽이거나 진동수가 작은 상태에 있다.

¶ 콘트라베이스의 낮은 선율이 흘렀다./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단호했다./적장의 코고는 소리는 높았다 낮았다 가락을 지었다.《박종화, 임진왜란》

높다 (「형용사」)

「1」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 굽이 높은 구두/산이 높다/서울에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2」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

¶ 천장이 높다/가을에는 하늘이 높다.

「3」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압력 따위가 기준치보다 위에 있다.

¶ 높은 기온/압력이 높다/그는 혈압이 높다./장마철에는 습도가 높다./이 지역은 수압이 높아서 물의 공급이 원활하다.

「4」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 품질이 높은 가구/안목이 높다/소득이 높다/성적이 높다/그의 소설은 문학적 가치가 높다./독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높은 시력을 갖고 있다.

「5」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 높은 이자율/높은 합격률/가격이 높은 물건/난치병이라도 조기 진단할 경우 완치율이 높다./우리나라는 목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6」 지위나 신분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 지체 높은 양반/계급이 높다/신분이 높다/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진다.

「7」 소리가 음계에서 위쪽에 있거나 진동수가 큰 상태에 있다.

¶ 음성이 높은 소프라노 가수.

「8」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

¶ 명성이 높은 학자/악명이 높다/제주 감귤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9」 기세 따위가 힘차고 대단한 상태에 있다.

¶ 그는 투지가 높다./군사들의 사기가 높다 못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10」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

¶ 비난의 소리가 높다./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형식적인 환경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11」 꿈이나 이상 따위가 크고 원대하다.

¶ 젊은이여, 높은 이상을 가져라.

「12」 소리의 강도가 세다.

¶ 소리를 높여 외치다.

「13」 (('가능성'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일어날 확률이 다른 것보다 크다.

¶ 내년에는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그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국립국어원 사전에서 인용함)

### 13번 문제

#### 이의 제기 내용

밑줄 친 ㉠ (열린 소리)의 추론 근거가 불명확해서 ㉡번 문항도 정답이 될 수 있다.

#### 검토 과정과 결론

- 1) 선택지 표현이 지문의 특정 부분과 잘 대응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2) ㉡번 ‘공명의 위치는 얼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머리 공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될 수 있도록 지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즉, 말할 때나 노래할 때 모든 음역에서 경구개 앞부분을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설정해서 발성한다.



즉, 말할 때나 노래할 때 경구개 앞부분부터 얼굴 앞쪽까지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설정해서 발성한다.

- 3) ( ※ 나머지 문항은 해설지를 참고하세요. )

### 14번 문제

#### 이의 제기 내용

선택지 문항 ㉢번 문항, ‘동일한 시간에 음성 패턴을 비교하는 기술이 먼저 사용되었다.’의 참 - 거짓을 따질 수 없다.

#### 검토 과정과 결론

- 1) ‘먼저’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비교 대상이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2) 그래서 비교대상을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번 문항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 동일한 시간에 음성 패턴을 비교하는 기술이 확률 모델 기술보다 먼저 사용되었다.

## 16번 문제

### 이의 제기 내용

④번 문항인 ‘단음절로 이루어진 우리말은 그 음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부분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검토 과정과 결론

1) <보기>의 마지막 문장이 ④번 문항과 관련되므로 이 문장의 의미가 명료한지 검토하였다. 참고로 <보기>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의 경우 단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비슷한 발음이 많이 존재하므로 음성인식 판단이 매우 어렵다.

2)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쉼표가 들어감으로써 쉼표 앞부분과 뒷부분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2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중의적 문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단음절로 된 숫자의 경우라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의 경우 단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발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음성인식 판단이 매우 어렵다.

3) ④번 문항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다음처럼 수정하기로 하였다.

④ 단음절로 이루어진 **모든** 우리말은 그 음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 문제 해설 ] ( 질문이 많았던 문제와 문항을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 1번 문제

- ① (가)와 (나)시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없다.
- ② 시에서 현실인식은 화자가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노래하는 것이다. (가)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에서만 나타나는데,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슬픔을 이해하자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의미를 묻는 것은 (나)시이다. 의문문의 형태를 통해 강물이 풀리는 의미를 되새기려 한다. (다)시는 ‘~하겠다’라는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자연물과 관련시키면서 노래하고 있다.
- ⑤ 세 시 어느 경우도 구도적 자세로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 2번 문제

- ① (가)시에서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다. (나)시는 수미상관 구조를 취하고 있고, (다)시는 ‘~하겠다’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앞부분 의의 제기 검토 부분 참조하세요)
- ③ 정형물의 율격이라는 개념은 한시처럼 매우 엄격한 정형시의 율격을 의미한다.
- ④ (가)시에서는 청자인 ‘그대’가 현존하지 않으며, (나)시에서는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나)시에서는 **밧줄레와 썩니플**은 생명을 의미하며, **꽃상여와 떼과부**는 죽음을 의미한다. (나)시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시어가 병치되고 있지만,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시적 상황의 의미를 깊게 파고들고 있다.

### 3번 문제

“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하라”는 조건이 발문에서 제시되면 <보기>에 나온 개념이나 내용이 선택지에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와 상관없이 판단한 것이다. ③번 문항의 표현은 <보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것이다.

### 5번 문제

- ② 화자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기쁨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슬픔을 모르는 기쁨에게 슬픔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쁜 사람에게도 슬픔이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암시한다.
- ④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된 이들에게는 슬픔이 된다. 그런데 소외된 이들의 슬픔은 가마니 한 장 덮어주지 않고,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기쁨 때문에 더욱 슬퍼진다.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외된 이들을 슬프게 하는 ‘함박눈’은 바로 기쁨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에서 청자인 바로 기쁨 자신의 행복과 관련된다. ‘멈추겠다’라는 서술어의 의미도 ‘슬픔을 주겠다’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쁨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멈추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화자는 청자인 기쁨에게 슬픔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자기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같이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려 한다. 그래서 ‘~까지’라고 목표점이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래 너도 슬픔을 당해봐’라는 식의 슬픔 강요와는 거리가 멀다.

### 7번 문제

㉠ ‘반사실적 생각 때문에 후회가 발생’하는 것은 대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선택의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문제는 ㉠ 문장의 바로 위 문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 부분에 내포된 의미는 ‘대안과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선택지 ②번 문항의 사례도 이해할 수 있다.

- ① 친구 초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안과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과 같은 후회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은메달 수상자는 결승 시합에서 할 수 있었던 여러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을 때 최상의 선택과 행동을 하지 못함을 자책할 수 있다. ④번 ⑤번 문항도 같은 맥락이다.

### 8번 문제

<보기1>에 대한 판단을 [A] 상황에서 해야 한다. [A]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해보면, 첫째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후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1>의 갑식이 경우를 살펴보자. 갑식은 돈 벌려고 K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S회사 주식으로 바꾸어 손해를 보았다. 즉 갑식은 행동을 하였고, 반면에 갑돌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식이가 갑돌이보다 더 후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기2>의 ㉠은 서로 바꾸어 표현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갑식은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돈 벌려고 한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레저 활동 등을 더 후회할 수 있다.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소망에 기초한 후회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기2>의 ㉡은 [A]상황과 관련을 갖는다.

<보기2>의 ㉢ 경우는 [A] 위 단락의 내용과 관련된다. 즉 후회의 민감도는 대안과 선택이 많을 때 커지게 된다.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 경우는 [A]에 나오는 내용이나 개념과는 상관이 없다.

### 13번 문제

이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둘째 문단에서 벨칸토 발성법과 관소리 발성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서는 관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넷째 문단에서는 벨칸토 발성법의 원리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 열린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문단의 ‘자연스러운 발성’을 염두에 두고 넷째 문단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자연스러운 입모양과 입사용’과 ‘호흡과 발성은 함께 가는 것’에서 추론 가능하다.
- ② ‘경구개 앞부분부터 ~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설정해서 발성한다’에서 추론 가능하다. 공명은 소리의 울림이 일어나거나 커지는 것이므로 성대에서 발성된 소리는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나와야 할 것이다.
- ③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무리가 없고 발성 기관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라는 구절에서 추론 가능하다.
- ④ ‘공명의 위치 설정’과 ‘공명 공간의 확보’와는 다른 내용이다. 벨칸토 발성의 원리는 공명 위치의 정확한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입안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은 벨칸토의 자연스러운 발성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④번 문항이 타당하지 않다.
- ⑤ ‘경구개 앞부분부터 얼굴 앞쪽까지 공명이 시작되는 위치로 설정해서 발성한다’라는 부분이 ‘공명의 위치는 얼굴 앞쪽에 있기 때문에’와 관련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머리 공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벨칸토의 자연스러운 발성 원리와 일치한다.

### 14번 문제

- ② 이 문항은 ‘음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므로 음성 특징은 짧은 구간에서만 안정적인 특징을 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짧은 구간에서만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긴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특징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안정적인 특징’을 못 갖는다는 것이지, 아무런 특징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긴 구간에서 음성이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패턴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단락에서 음성 신호를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잘라내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이와 같은 추론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③ ( 앞부분 의의 제기 검토 부분 참조하세요.)

### 16번 문제

- ② ‘숫자의 경우 단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발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부분에서 추론 가능하다.
- ③ ‘어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된다. 또 매우 짧은 발음을 가진 조사에 의해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부분에서 우리말의 문장 성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 앞부분 의의 제기 검토 부분 참조하세요.)
- ⑤ ‘언어와 관련된 기술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7번 문제

㉔와 ㉕ 단어의 관계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단어 자체만 보아서 안 되고, 그 문장에서 단어 관계를 파악해보라는 출제의도이다. 이렇게 문맥적 의미 관계에서 ㉔와 ㉕를 파악해보면, ‘사람의 소리(=음성)’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소리(=소음)’라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 때 ‘사람의 소리’가 소리라는 전체 범주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 소리가 아닌 소리’가 합쳐져야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는 ‘A와 not A’라는 논리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A와 not A가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단어들은 ‘역사 - 선사’이다. 인간이 살아온 시간 흐름을 나눌 때 ‘역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역사가 아닌 시간은 역사보다 더 앞선 ‘선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와 선사의 시간을 합치면 인간이 살아온 전체 시간적 흐름이 된다.

‘현재 - 미래’는 ‘과거’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야 완전한 시간 전체를 구성한다. ‘예술 - 음악’은 음악이 예술에 포함되고 있는 전체 -부분 관계다. ‘찰나 - 순간’은 유의 관계이다. ‘도로 - 철도’는 ‘길’이라는 상의어에 대한 하의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 18번 문제

- ① (가)시는 청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독백적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다. (나)시에서는 청자가 존재하며, 후반부에서는 지난날을 후회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 ② (다) 글은 냉소적인 표현으로 세태를 꼬집고 있다. ‘오기만 한다면 진실로 최대의 기관(奇觀)일 것은 기관일 것이나, 인류문화의 향상발달에 기여하는 바만은 오늘에 비하여 훨씬 클 것이다’라는 부분이 세태를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자신과 세계’, ‘자아와 세계’에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개념은 자연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나)와 (다)시에서 세계는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자신과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시의 화자는 공명을 탐한 결과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사회적 상황이 자신과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다) 글의 화자 역시 병원 진료환자가 실험동물로 전락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대립, 갈등을 느끼고 있다.
- ④ 교훈은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행동이나 가치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점에서 수필인 (다) 글은 교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와 (나)시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시는 화자의 깨달음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지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훈민가’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시의 깨달음은 일반적으로 교훈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⑤ (가)는 분수를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고, (나)는 공명을 탐한 자신을 탄식하고 있으며, (다) 글은 사회 비판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22번 문제**

㉔에 나타난 관점은 자기 몸을 기증하여 의학발달에 도움을 주어 결국 인류 문화 향상 발달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학생’은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사람이다.

(출제의도와 정답이 명확해지도록 지문과 발문, 선택지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어요.)

지문 → ㉔ 인류문화의 향상발달에 기여

발문 → (다)의 밑줄 친 ㉔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선택지 → ㉔ ㉕ : 해부를 유연한 사형수

**24번 문제**

- ③ 넷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열린 우주에는 있는 별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라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별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우주 공간 내 별들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고 우주 공간 안에서 별들은 점점 더 희박하게 된다. 즉 우주의 밀도는 낮아질 것이다.
- ⑤ 우주에는 중력 에너지와 팽창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㉔ 시점 이전에는 팽창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했다가 ㉕ 시점에서는 팽창운동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와 같아진다. 그 이후에는 중력 에너지가 팽창 운동에너지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우주가 수축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25번 문제**

- ② 결정 이양의 원리는 화자가 일부를 남겨두어 표현하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 ④ 이 문항은 셋째 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을 완전히 결정짓지 않은 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화자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해 판단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히 드러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다.

**26번 문제**

- ③ 화자는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있지만 질문의 형태로 말을 하여, 청자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청자 스스로 판단하여 말하게 되면 화자의 판단 내용을 청자가 확인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화자의 의도와 판단내용은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경제성의 원리보다는 공손성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7번 문제

㉠ 누가 떠들지?	타인의 부정적인 것을 줄여서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
㉡ 학교 앞 천천히	정보가 복잡한 것을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
㉢ 철수 : 오늘 저녁 나랑 영화 볼래? 영희 : 다음 주에 볼 시험 준비해야 돼.	청자의 바람이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는 공손성의 원리
㉣ 철수 : 커피 드시겠어요? 영희 : 고맙습니다.	연속되는 단계의 정보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단계를 줄여서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 (“예, 마시겠습니다.”가 생략됨)

28번 문제

- ①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의 예를 들면, ‘사랑 손님과 어머니’ (어린아이), ‘봄봄’ (바보), ‘치숙’ (친일분자)처럼 정상적인 서술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런 서술자가 나타날 경우, 독자들은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서술자의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맥락이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 그런데 성장 소설에서 어린 유년 시절의 서술자는 신뢰하기 어려운 서술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린 유년 시절의 판단과 성인 시점에서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소설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유년 시절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 ② 1인칭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서술자 자신과 관련되므로 그 이야기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인공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 전달’은 이것을 의미한다.
- ⑤ 그리고 엄마의 행동과 말에 대해 서술자는 관찰하면서 자신이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의 모습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보여주기 방식은 대화의 재현이나,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 있지 않은 묘사를 말한다. 이 장면에서 몇 안 되는 대화 부분은 엄마의 말이며, 이러한 말 속에 엄마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사를 한 후 감개무량의 말도 ‘인 서울’하겠다는 엄마의 태도와 관련되며, 축대가 무너질까 걱정하는 오빠를 꾸짖는 엄마의 말도 가장으로서 엄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대화 이외의 서술부분은 1인칭 서술자의 판단이 함께 들어 있어서 보여주기 방식이라기보다는 말하기 방식(=설명)에 더 가깝다. 그래서 보여주기 방식은 이 장면에서는 엄마의 대화나 말로 한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③번 문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④ 유년 시절에 사용할 수 없었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인이 된 시점에서 유년시절을 판단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경성부(京城府)이지만 사대문 밖의 땅을 통틀어 문(門)밖이라고 칭하는 게 그 무렵의 관용어였던 걸 알 까닭이 없는 나는’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른이 된 시점에서 판단이 들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31번 문제**

- ① ㉠의 의미는 그 다음 엄마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았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가 나타난 이유는 그 문장의 ‘**알 까닭이 없는 나는**’ 부분에서 암시되고 있다. 즉, 유년 시절에는 그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③ 오빠와 나는 이사한 집에 대해 처음에는 난감스럽기만 했지만, 집안이 달라지는 재미가 붙게 되어 엄마 일을 거들게 된다. 이는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세들어 살다가 자기집을 마련한 엄마는 “**기어코 서울에다 말뚝을 박았구나**” 하면서 감개무량해 한다. 비록 산꼭대기 집일망정 어렵게 자기집을 마련한 것이고, 앞으로 사대문안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엄마의 자부심이 <우리괴불마당>이라는 애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⑤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매동학교를 다니는 문안의 아이들이 아니다. 이들은 산꼭대기 집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동네의 아이들이다. 집을 사서 이사를 했지만 나는 이들과 같은 산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문장 이후의 서술부분이다.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문안 학교인 매동학교에 나 혼자 다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다. 동네 아이들과 왕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사를 멀리 한 것은 아니므로 ⑤번 문항은 타당하지 않다.

**33번 문제**

㉠	가전 업체 A사, B사, C사의 과점 시장 경쟁 상황	‘경제라는 큰 게임에서 경기자의 모든 결정에는 상대 선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예상이 포함’되는 것이 게임이론의 특성이다. 과점시장은 상대방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는 게임이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전년도 기업 실적의 분배를 놓고 이루어지는 노사간 임금 협상	이 경우 기업의 실적은 정해져 있는 몫이고, 노사간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는 첫 문단에 나오는 ‘파이 하나를 놓고 다룰 때,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의 합계가 0이 되는 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
㉢	국가의 이익을 놓고 국가들 사이 다자간 협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국제 정치의 상황은 ‘대립과 경쟁의 요소 이외에도 협력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고, ‘현실에서 경쟁은 3인 이상의 다자간 경쟁이 대부분’인 비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
㉣	영화를 아침에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가격을 낮추고, 저녁에는 가격을 올리는 상황	소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따로 설정하는 시장분할 상황은 게임이론과 관련이 없다.

### 34번 문제

- ① 맥시민은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인데, 이는 최소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①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② 미니맥스는 자신에게 예상되는 손해 중 가장 적은 쪽을 택하는 전략인데, 이는 상대방이 갖게 될 최대 이익 중 최소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략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갈비 식당이 미니맥스 전략을 취하여 장어식당의 이익을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때 갈비 식당이 갈비 메뉴를 선택하면 이러한 미니맥스 전략이 실현되게 된다. 갈비 식당이 갈비 메뉴를 선택하면, 장어 식당이 장어를 내놓더라도 손님을 45명으로 제한시킬 수 있고, 또 장어 식당이 한정식을 내놓더라도 손님을 35명으로 제한시킬 수 있어 상대방 장어 식당의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②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③ 장어 식당이 맥스맥스 전략을 취하여 65명 최대 이익이 가능한 한정식 메뉴를 선택하고 싶지만, 갈비 식당이 갈비 메뉴를 내놓게 되면 장어 식당의 손님을 오히려 35명으로 이익이 최소화되어 장어를 내놓을 때 손님 45명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장어 식당은 맥스맥스 전략을 피하게 된다. ③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④ <보기2> 상황은 수요자 100명을 놓고 두 식당이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고, 영업 당일날 서로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 서로 모르는 동시 의사결정 게임 상황이므로 ④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⑤ 지문의 첫 문단에서 게임 이론의 근본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자의 모든 결정에는 상대 선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예상이 포함되고 있는데’ 부분에서 ⑤ 문항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7번 문제

- ① <보기>의 구절 중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중시하며, 이러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경륜을 펼치고자 하였는데’ 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교양은 학문적 소양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시어 ‘이러한’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과 학문적 소양은 서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소양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권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중에서, ‘소저 아미를 숙이고 마지못하여 산호필을 들어 일필휘지하니 자자주옥이라. 그 글에 하였으되, ~ ~ 하였거늘 승상이 받아보고 무수히 칭찬하여 말하기를’에서 여자들도 이러한 소양을 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성이 받아보니 시법이 청신하고 필획이 기이한지라. 심중에 탄복하여 거두어 소매에 넣으니’ 부분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소양이 있는 여자가 사대부의 배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①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② 소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강압으로 대성 앞에 나섰으나 대성을 점차 살펴보고 나서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 혼인을 결심한다. 이를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먼저, ‘소저 또한 아미를 잠깐 들어 대성을 살펴보니 위풍이 엄하고 풍채 현앙(軒昂)하여 한번 보매 심중에 경복함을 마지않아 하더라.’ 부분이다. 그리고 밑줄 친 ㉔ 의 ‘소저 또한 사양치 아니하고 혼연히 받으니’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②번 문항이 타당하지 않다. 소저가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아버지 뜻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왕부인은 대성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특히 ‘부인이 주저하나 감히 말리지 못하고 잠깐 대성을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여 선비의 기상이 아니라. 내심에 불열(不悅)하여 생각하되’ 부분에서 대성에게서 선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비로서, 사대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보기>에서 말하는 공명 출세의 가능성과 관련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③번 문항도 타당하다.
- ④ 승상의 경우는 자신의 딸을 위해 사윗감으로 판단한 대성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결정지으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부인의 경우 대성의 인물됨이 사윗감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혼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집안에 걸맞는 사위를 찾으려하며, ‘저 결인을 어찌 사위로 삼으리오.’ 부분에서 소저 혼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소저의 경우는 외인 남자에게 쉽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맺게 될 혼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소저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의취죽은 열녀조라’하는 부분에서 남성 배필과 만남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성의 경우는 밑줄 친 ㉞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여색을 많이 보지 못하였으나 내 눈을 놀라게 할 이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소저를 대하니 심신이 황홀하도다.’ 이 부분에서 대성은 웬만한 여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배필로는 특별한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④번 문항은 타당하다.
- ⑤ 승상은 “네 아버 명을 거역하니 삼강(三綱)이 무너졌는지라. 세 번 재촉하여 좃지 아니하면 부녀지의를 끊으리라.” 라고 유교 사회의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결혼을 압박하고 있다. ⑤번 문항도 타당하다.